

학령전기 자녀의 문화에 따른 주의 양상에서  
양육자 영향 탐색

Received: January 15, 2026  
Revised: March 2, 2026  
Accepted: March 4, 2026

정유진<sup>1</sup>, 최영은<sup>2</sup>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sup>1</sup>,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sup>2</sup>

교신저자: 최영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E-MAIL: yochoi@cau.ac.kr

Exploring Caregivers' Influence in Shaping Cultural Attention  
Bias of their Preschoolers

Yujin Jeong<sup>1</sup>, Youngon Choi<sup>2</sup>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M.A. student<sup>1</sup>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sup>2</sup>

\* 이 논문은 정유진(2026)의  
석사 논문을 기반으로 함.  
\* 해당 논문은 2025년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됨.



© Copyright 202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ABSTRACT

일상에서 전경이 되는 물체나 배경이 되는 맥락에 다르게 주의를 배분하는 주의 편향성은 문화에 의해 형성되어 7세 이후부터 성인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발달 초기부터 양육자가 문화 전달자로서의 문화적 주의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입증하는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 3~5세 아동과 어머니 127쌍의 장면 묘사 과제에서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측정하고, 어머니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 개인차가 자녀의 문화적 주의 편향을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전반적 묘사에서 3~5세 아동과 어머니 모두 전경 중심적 주의 패턴을 보여 기존 한국 성인 연구 결과와 달리 복미의 주의 편향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연령을 통제하고도 어머니의 전경 물체 묘사 경향성은 자녀의 전경 묘사 경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양육자가 문화 전달자로서 자녀의 주의를 발달 초기부터 형성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문화적 주의 편향성, 장면 묘사, 문화 전수, 양육자 영향

세상의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정보 처리의 기본 관문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어떤 대상에 먼저 주목하고 더 많은 주의를 할당하는지에 따라 처리하여 저장하게 되는 정보의 종류와 질이 달라지는데, 주의를 지각, 기억, 실행 기능, 학습과 같은 다른 인지 과정과 긴밀하게 상호 작용하기 때문이다(Anderson, 2002; Senzaki & Shimizu, 2022).

우리의 시각 세계는 기본적으로 객체와 배경을 내포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 장면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거나 습득하려 할 때, 정보 처리의 목표에 따라 장면의 중심에 있는 전경 물체에 주의를 우선 배당할 수도 있고, 장면의 특정 측면이나 장면 전체의 배경에 주의를 배분할 수도 있다(Darby et al., 2021).

성인의 경우, 장면의 정보를 처리할 때 목표한 바에 따라 주의를 조절하여 전경과 배경에 대한 주의를 달리 배분할 수 있으나 4~6세의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경 물체 편향적인 주의 배분 양상을 보이고(Darby et al., 2021), 어릴수록 이와 같은 물체 주의 편향성은 더 강력히 나타난다(O'Hanlon & Read, 2017).

물체 주의 편향성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배경보다 특정 물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체의 명칭을 습득할 때 지시 대상에 주목하고 명칭과 지시 대상을 연결하도록 도와 단어 습득을 촉진할 수 있다(Suarez-Rivera et al., 2019).

그런데 다양한 대상에 대한 선택적 주의 패턴은 인간의 내재적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에 의해서도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Masuda, 2017; Senzaki & Shimizu, 2022; Vygotsky, 1930; 1978). 개인의 표현과 자율성

을 강조하는 북미 문화권(Marc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5)의 성인들은 배경보다는 전경의 물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물체 편향적 주의 경향성을 보인다(분석적 주의 편향성(analytic attention bias)이라고 함, Nisbett et al., 2001). 반면에 개인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와 조화를 강조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인들은 배경이나 맥락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전체적 주의 편향성(holistic attention bias)을 보였다(Masuda, 2017; Masuda & Nisbett, 2001). 이러한 결과들은 문화적 맥락이 개인의 주의 편향성의 토대가 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Masuda, 2017).

문화에 따른 주의 편향성의 차이는 7~9세 아동에게서도 관찰되어 발달 초기부터 문화적 맥락이 주의 편향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Imada et al., 2013; Senzaki et al., 2016).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미국의 아동들은 전경의 물체를 중심으로 묘사하는 물체 중심적, 혹은 분석적 주의 편향을 보였다. 반면에 일본 아동들은 전경보다 배경과 맥락에 중점을 둔 묘사를 하여 전체적 주의 편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6~7세에 출현하여 8~9세에는 성인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관찰되었다(Imada et al., 2013).

유사하게 일본과 캐나다의 아동들에게 애니메이션을 본 뒤 장면을 묘사하도록 하였을 때, 아동 혼자 수행할 때는 두 문화권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모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장면을 묘사하도록 하자 문화권의 차이가 나타나 사회문화적 맥락 차이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Senzaki et al., 2016).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7~9세 아동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4~6세 아동에게서는 관찰되지 않아 주의 편향성 형성에 문화적 경험의 축적이 필요할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발달 초기 문화적 경험은 주로 양육자를 통해 형성된다. 발달 초기 아동의 사회적 환경이 가정과 양육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적 주의 패턴을 형성하는 데에도 양육자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Senzaki 등(2016)의 연구에서 홀로 장면을 묘사할 때는 문화적 차이를 보이지 않던 일본과 캐나다의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할 때 그 차이를 드러낸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

주의 편향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자의 문화적 영향은 발달 초기부터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6~18개월 영아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는 동안 기록된 어머니의 발화 내용을 비교 분석한 Senzaki와 Shimizu(2020) 연구에 따르면, 미국 어머니들은 장면 묘사에서 전경 객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일본 어머니들은 배경과 전경 객체 사이의 관계나 상호작용을 더 많이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세 자녀를 둔 미국과 일본의 어머니 장면 묘사 비교에서도 개별 물체에 중점을 둔 미국 어머니의 묘사와 달리 일본 어머니는 객체 간의 관계 묘사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Senzaki & Shimizu, 2022).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부터 양육자가 가진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자녀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꾸준히 전수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5세 미만의 아동에게서는 문화권에 따른 주의 편향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스웨덴과 짐바브웨의 9개월 영아 모두 일상 장면을 바라보는 양상에서 유사한 주의 할당 패턴을 보였고(Tu et al., 2025), 중국과 미국의 2세의 주의 양상(Waxman et al., 2016)과 3~4세의 일본, 미국 아동(Shimizu et al., 2021), 5세의 일본과 독일 아

동(Köster et al., 2018)의 주의 배분 양상에서도 문화 간 차이보다는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적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고 내재화되기 이전에는 아동의 자발적 주의 할당 패턴에 반영되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형성된 주의 패턴은 사회화 과정이 더 이루어진 6, 7세 경부터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측정 방식이나 과제 수행의 맥락에 따라 더 어린 나이에도 문화적 주의 편향성의 영향이 관찰된 보고들도 존재한다. 에빙하우스 착시 과제를 사용하여 일본과 미국의 3~8세 아동의 시선 반응을 추적한 Senzaki 등(2025)에서는 전체적 주의 편향이 있는 일본 아동이 착시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3~4세 아동에게서도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Senzaki와 Shimizu(2022)에서도 일본의 3~4세 아동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이전에는 미국의 아동과 유사하게 물체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선 응시 패턴을 보였으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직후에는 배경으로의 주의 분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웃는 얼굴, 슬픈 얼굴, 그리고 중립적 표정의 얼굴 자극을 5개 배열하고, 가운데 제시된 얼굴이 슬픈지 기쁜지를 판별하도록 고안된 사회적 Flanker 과제 수행 결과에서도 6~7세 일본 아동만이 아니라 4~5세 일본 아동이 캐나다 아동에 비해 주변 얼굴 자극의 방해를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맥락적 주의 편향성이 이 시기에도 발달하여 있을 가능성도 제시되었다(Senzaki et al., 2018). 같은 주의 집행 과제에서 얼굴이 아닌 물고기가 향한 방향을 탐지하도록 하면 일본 아동의 수행이 캐나다 아동보다 더 정확하여 주변 자극의 방해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Senzaki et al., 2018). 이는 일본 아동이 사회적 Flanker 과제 수행에서

받은 방해가 사회적 요소에 대해 주의를 달리 배분하는 문화적 요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Senzaki et al., 2018).

종합하면, 영아기와 같은 발달 초기부터 양육자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전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양육자의 경향성이 이르면 3세부터 주의를 배분하는 패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주의 형성에서 양육자의 문화적 영향을 문화 내 개인차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Rozin, 2003).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더라도 구성원이 문화적 편향을 보이는 정도는 다를 수 있고, 자녀에게 전수되는 정도도 다를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별도의 중재나 개입 없이 양육자와 3~5세 자녀가 각기 같은 장면을 묘사할 때 주의 패턴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양육자의 주의 편향성에서의 개인차가 3~5세 자녀의 주의 편향성의 개인차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를 충분한 표집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한국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와 자녀의 동일한 장면 묘사를 비교 분석한 김미자(2024)의 연구 시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도 양육자의 문화적 편향성이 클수록 그 자녀의 문화적 편향성도 어머니와 같은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엿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최근 Carstensen 등(2024)의 중국, 미국 3~12세 아동 장면 묘사 과제 분석에서도 어느 정도 관찰되었는데, 두 연구 모두 3~5세 아동의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이 시기에 출현하는지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는 제시되지 못하였고 이를 재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남아있었다.

양육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연구의 경우에도 양육자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거나(Senzaki et al., 2016) 과제 수행 전에 양육자와 일시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였을 때에만(Senzaki & Shimizu, 2022) 양육자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가 보인 문화적 주의 편향성에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이라는 개인차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다만, 과제 수행 중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평소 문화적 영향이 축적되어 어느 정도 내재화되어 나타난 것인지를 판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나아가 급격한 산업화와 교육 수준의 변화 등으로 양육자의 문화적 가치와 주의 편향성도 과거와 달리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크다(김동노, 2023; 김재현, 최영은, 2025; 나은영, 차유리, 2010; 윤혜령, 최영은, 2023; 이경원, 2013; 전종우, 2022; Santos et al., 2017). 한국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고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 중심적인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고려되었다(Rhode et al., 2016). 실제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장면 묘사 연구를 진행한 Tajima와 Duffield(2012), Rhode 등(2016)에서는 한국 성인이 일본 성인보다 배경을 언급하는 경향성이 강하고, 중국 성인보다도 배경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언급하는 전체적 주의 편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18~36개월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장면 묘사 패턴을 보면, 첫 언급은 전경 객체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전체 언급에서도 전경과 배경에 대하여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나(김재현, 최영은, 2025) 기존 한국 성인의 전체적 주의 편향성과는 다른 양상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양육자가 어떠한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재검토하고, 이러한 가치가 문화적 주의 편향

성과 관련성을 보이는지, 나아가 양육자에게 형성된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일상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에게 이른 시기부터 전수되어 자녀의 주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양육자가 지닌 문화적 가치를 살펴보기 위하여 Singelis 등(1995)이 개발한 개인주의 집단주의 척도(The 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 INDCOL)를 사용하여 3~5세 자녀를 둔 한국 양육자가 두 차원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개인주의 중심 문화 맥락은 개별 객체에 대한 주의 편향성을 강화하고 반대로 집단주의 중심 맥락은 전체와 맥락적 주의를 촉진한다고 고려되므로 이 척도로 측정된 양육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가 양육자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과 관련성을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살펴보고자 양육자와 자녀가 같은 장면을 각기 어떻게 묘사하는지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장면을 묘사한 내용에서 전경과 배경을 언급하는 비율을 추출하여 양육자의 장면 묘사에서의 주의 편향성이 자녀의 장면 묘사 양상을 예측하는지 그 관계를 검토하였다. 장면 묘사 과제는 여러 과제 중에서도 문화적 경향성을 잘 드러내는 과제인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Cao et al., 2024).

마지막으로 장면 묘사 과제로 측정된 양육자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자기 보고 척도로 측정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가치와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한국 어머니와 3~5세 자녀의 장면

묘사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주의 편향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 문제 2.** 한국 어머니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의 개인차는 자녀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가?

**연구 문제 3.** 한국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는 장면 묘사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주의 편향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어머니와 3~5세(41~68개월) 아동 166쌍이 참여했으며, 그 중 39쌍은 아동의 참여 포기(15명), 부모 혹은 형제의 중도 개입(8명), 기술적 어려움(16명)으로 인해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 포함된 어머니-아동은 총 127쌍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김미자(2024)와 정유진(2026) 석사 연구에서 해당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나이에 따른 경향을 살핀 선행 연구(Imada et al., 2013; Senzaki et al., 2016)의 접근법에 따라 아동을 나이 별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3세 집단(41~47개월)에는 39명( $M = 43.67$ 개월,  $SD = 1.72$ , 여아 16명), 4세 집단(48~59개월)에는 56명( $M = 53.29$ 개월,  $SD = 3.55$ , 여아 25명), 5세 집단(60~68개월)에는 32명( $M = 63.72$ 개월,  $SD = 2.56$ , 여아 21명)이 포함되었다.



그림 1. 장면 묘사 과제에 사용된 자극의 예시(Jurkat et al., 2021에서 차용함).

## 연구도구

### 장면 묘사 과제

참가자들은 Jurkat 등(2021)에서 사용한 자극인 자연 또는 도시 배경 앞에 있는 동물 또는 탈 것으로 구성된 장면 4장을 보고 장면을 묘사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그림 1 참조). 선행 연구와 달리 아동은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먼저 장면을 묘사하였고, 이후 어머니가 자녀에게 합류하여 같은 장면을 자녀에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가 어떻게 장면을 묘사하였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이 혼자 장면 자극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고 아동에게 장면에 대해 자유롭게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연구자는 아동에게 “선생님이 00(아동 이름)이에게 그림을 보여줄 건데, 이 그림들은 선생님은 볼 수 없고 00(아동 이름)이 혼자서 볼 수 있는 그림이야. 선생님은 그림이 너무 궁금한데 무슨 그림인지 이야기해줄래? 설명해줄 수 있을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면 묘사를 요청하였다. 아동이 장면을 설명하는 동안 연구자는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반응으로 고

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구나.”, “음” 등으로 아동의 설명을 듣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아동의 묘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드백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다만, 아동이 장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거나, 한마디만 한 경우 연구자는 “또?”, “더 이야기해줄래?”, “그리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아동이 장면에 대해 더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동이 더는 설명할 것이 없다고 의사 표현한 경우 다음 장으로 넘어가며 연구자는 “이 그림도 설명해줄래?” 등과 같이 표현하며 장면 묘사를 요청하였다. 아동이 사용한 장면 과제와 같은 자극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장면 묘사 과제를 진행하였기에 아동이 양육자와 분리가 어려운 경우,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아동의 뒤에서 앉은 상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동의 장면 묘사가 끝나면, 어머니가 돌아와 자녀에게 같은 장면을 묘사하도록 요청하였다. 과제 시작 전 연구자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혼자 그림을 보시고, 아이에게 그림을 설명해 주세요. 아이의 반응이나 응답과 관계없이 어머니의 설명이 중요해요. 하나의 그림 설명이 끝나면 다음 그림으로 바로 넘겨주세요.”라고 요청하였다. 연구자는 과제 안내 이후 아동과 어머니에게서 약간 떨어진 곳에 앉아 개입하지 않았다. 어머니 과제에서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중요치 않기에, 어머니 과제 중 아동이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하면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하였다.

### 어머니 문화적 가치 설문지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Singelis 등(1995)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척도(The 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 INDCOL)를 사용하였다. INDCOL 척도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을 수평적, 수직적 차원에서 각각 측정하는 척도로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 HI),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VI),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 HC),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 VC)로 4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어 점수가 산출된다.

각 4개의 하위척도는 8개 문항,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수평적 개인주의(HI)는 자율적인 자아를 가정하지만, 개인이 타인과 지위 면에서 거의 동등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예, 한 개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독립적으로 개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수직적 개인주의(VI)는 자율적인 자아를 가정하지만, 개인이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고 불평등을 예상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경쟁이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난다(예, 나의 일을 남들보다 잘하는 것은 중요하다). 수평적 집단주의(HC)는 개인이 자신을 집단의 일부, 또는 하나의 측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평등이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난다(예, 나에게 기쁨은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수직적 집단주의(VC)는 개인이 자신을 집단의 일부, 또는 하나의 측면으로 여기지만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고 일부는 다른 구성원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해당 문화적 가치를 강하게 지니는 경우, 불평등을 용인하고 집단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예, 나는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아주 싫어하는 활동도 할 것이다)(Singelis et al., 1995).

본 설문지는 문항 순서만 다른 두 가지 유형 A, B로 구성하여 제공되었다. 두 유형 간의 통계적 동질성 및 구체적인 신뢰도 검증 결과는 연구 결과에 제시하였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662로 나타났다.

아동의 어머니에게 두 유형 중 하나의 설문지를 제공하였고, 32개 문항 모두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9점(매우 그렇다) 사이로 평소 생각하던 바와 같이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다. 각 4개의 하위척도는 최소 8점부터 최대 72점까지 산출되며 이를 문항 수(8)로 나누어 하위척도 별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평균값 계산 결과, 네 개의 하위척도는 최소 2.625점부터 최대 9점까지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대한 사전 안내 이후 아동과 연구자가 장면 묘사 과제를 먼저 수행하였다. 연구실 내 분리된 공간인 상담실에서 연구자와 아동은 책상을 중간에 두고 마주 보고 앉은 채로 장면 묘사 과제를 한 차례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아동 외 타인은 해당 공간에 들어오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다만, 아동이 부모와 분리가 어려운 경우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함께 공간에 들어와 아동 뒤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아버지가 함께한 경우, 개입을 삼가도록 안내하였으며 과제에 개입한 경우, 해당 아동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동과 연구자가 연구실 내 상담실에서 과제를 진행하는 동안 어머니는 상담실 밖 로비에서 문화적 가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어머니의 설문지 작성과 아동의 과제가 종료된 후, 어머니와 아동은 연구실 내 상담실에서 연구자와 함께 어머니의 장면 묘사 과제를 진행하였다. 이때, 어머니는 이전 연구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아동에게 장면을 묘사하였다. 어머니와 아동이 묘사한 장면들은 같은 장면들이었고, 장면 제시 순

서도 같았다. 어머니와 아동이 동일한 자극을 사용하여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기에 서로의 주의 편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모든 과제 수행은 참가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여 기록하였고, 이후 전사 및 코딩 과정에 사용되었다.

### 장면 묘사 발화 코딩

아동과 어머니의 발화는 모두 전사한 후, Masuda와 Nisbett(2001)에서 사용한 'Michigan Fish Protocol' 방법을 사용하여 코딩하였다. 본 코딩 방법의 신뢰도는 89% 이상으로 보고되었다(김재현과 최영은, 2025; Carstensen et al., 2021; Masuda & Nisbett, 2001; Senzaki et al., 2014, 2016; Senzaki & Shimizu, 2022).

아동과 어머니가 각 장면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을 '첫 언급'으로 배경 혹은 전경 중 하나로 코딩하였다. 이후 전경과 배경에 대한 묘사를 각각 9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9개 항목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전경/배경 개체에 대한 단순 명명(예. "강아지", "구름", "자동차"), 2) 전경/배경 개체에 대한 속성 묘사(예. "작은", "노란색"), 3) 전경/배경 개체에 대한 숫자 표현(예. "말 한 마리", "돌이 많다."), 4) 전경/배경 개체의 감정 표현(예. "강아지가 슬퍼 보여.", "고양이가 외로워."), 5) 전경/배경 개체의 행동(예. "개가 수영하고 있어.", "멧돼지가 바닥을 바라보고 있어."), 6) 전경/배경 개체의 전반적인 위치(예. "자전거가 뒤에 있네.", "풀이 왼쪽에 있어."), 7) 전경/배경 개체와 움직이는 물체와의 위치 관계(예. "울타리가 말 뒤에 있어.", "계단이 고양이 아래에 있어."), 8) 전경/배경 개체와 움직이지 않는 물체와의 위치 관계(예. "자동차가 집 앞에 있어.", "강아지가 바위 옆에 있

어."), 9) 전경/배경 개체에 관련된 시간 묘사(예. "갈색 풀이 있는 걸 보니 가을인가 봐.", "하늘을 보니 해가 질 무렵인가 봐.")

코딩을 마친 후, 4장의 장면 묘사를 하나의 발화 묶음으로 모아 전경 점수로 산출하였다. 전경 점수는 첫 언급을 제외한 전경에 해당하는 모든 언급 수를 전경과 배경을 모두 합한 전체 언급 수로 나누어 전경 물체를 언급한 비율로 정의하고 산출하였다. 따라서, 전경 점수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이며, 0에 가까울수록 전체 발화에서 배경 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1에 가까울수록 전경 언급 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첫 언급 역시 4장의 장면 중 전경을 처음 언급한 횟수를 4로 나누어 전경 물체를 처음 언급한 비율을 계산하여 첫 언급 전경 점수로 정의하였다. 첫 언급 전경 점수가 1인 경우 4장의 장면 모두 전경 개체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고, 0인 경우 4장의 장면 모두 배경 개체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을 나타낸다.

첫 언급 전경 점수는 장면 속 전경과 배경 중 발화자가 처음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과 장면 속 발화자가 고려하는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첫 언급을 제외한 전체 발화 전경 점수는 장면 속 전경과 배경에 대한 발화자의 주의 분배와 지속적인 처리를 반영한다(Masuda & Nisbett, 2001).

### 자료분석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은 모두 R 통계 프로그램(version 4.5.2; R Core Team, 2025)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아동의 나이(개월 수), 어머니와 아동의 발화 중 전경 묘사 비율(전경 점수), 어머니의 문화 설문지 점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아동의 나이를 통제하고도 어머니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아동의 주의 편향을 설명하는지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어머니 문화 설문지의 두 유형 간 신뢰도 동질성 확인을 위해 Feldt(1969)의 F-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전체 문항 및 하위척도 별 신뢰도(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이후 하위척도 및 전체 문화적 가치 점수의 기술 통계치를 확인하였고, 특정 문화적 가치에 편중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을 하였다.

## 결 과

### 한국 어머니와 아동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

아동과 어머니의 연령 집단별 전경 점수 평균은 표 1과 같다. 어머니 장면 묘사 결과, '첫 언급'에서 전경 점수 평균은 0.38( $SD = 0.37$ )이고, '전체 발화'에서 전경 점수 평균은 0.62( $SD = 0.13$ )이었다. 단일표본 t-검증 결과, 전체 전경 언급 비율은 우연수준 50%를 유의하게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어머니-아동 연령 집단별 전경 점수.

연령 집단	변인	첫 언급	전체 발화
3세	아동	0.93(0.19)	0.78(0.25)
	어머니	0.37(0.36)	0.66(0.11)
4세	아동	0.83(0.26)	0.51(0.23)
	어머니	0.40(0.37)	0.61(0.13)
5세	아동	0.93(0.15)	0.59(0.26)
	어머니	0.38(0.39)	0.60(0.16)
전체	아동	0.89(0.22)	0.62(0.27)
	어머니	0.38(0.37)	0.62(0.13)

주. 각 셀의 값은 전경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 $t(126) = 10.434, p < .001$ ).

아동 장면 묘사 결과, '첫 언급'에서 전경 점수 평균은 0.89( $SD = 0.22$ )이고, '전체 발화'에서 전경 점수 평균은 0.62( $SD = 0.27$ )이었다. 아동도 어머니와 같이 전체 전경 언급 비율이 50%를 유의하게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26) = 4.894, p < .001$ ).

어머니와 아동의 첫 언급 전경 점수에 대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r(125) = -.007, p > .05$ , 표 2 참조). 그러나 전체 발화 전경 점수에서는 유의한 정

표 2. 전체 변인 간 상관 ( $N = 127$ )

변인	1	2	3	4	5	6
1. 아동 개월 수(연령)	-					
2. 아동 첫 언급 전경 점수	-0.039	-				
3. 아동 전체 발화 전경 점수	-0.261**	0.397***	-			
4. 어머니 첫 언급 전경 점수	-0.01	-0.007	-0.001	-		
5. 어머니 전체 발화 전경 점수	-0.167	0.195*	0.23**	0.29***	-	
6. 어머니 문화적 가치 점수	0.073	-0.069	-0.075	0.015	-0.075	-

\* $p < .05$ . \*\* $p < .01$ . \*\*\* $p < .001$ .

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125) = .23, p < .01$ ).

아동의 나이는 전체 발화 전경 점수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r(125) = -.26, p < .01$ ). 이는 아동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배경 개체에 대한 언급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 한국 어머니가 지닌 문화적 가치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를 살펴보는 문화설문지는 분석에 앞서 각 유형의 역채점 문항(A형: Q31, B형: Q2)을 처리한 후, 두 유형 간 신뢰도의 통계적 동질성을 검증하고자 Feldt(1969)의 F-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형별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유형 A에서 .762(N = 65), 유형 B에서는 .703(N = 62)로 나타났다. 두 유형의 신뢰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64,61) = 0.801, p > .05$ ). 네 개의 하위척도 모두 유형 간 신뢰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ps > .58$ ).

이를 통해 두 유형의 문항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후로는 하나

의 자료로 통합하였다.

문화적 가치는 크게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4개의 하위척도 중 수평적 집단주의(HC)와 수직적 집단주의(VC) 점수의 평균을 내어 집단주의 점수로 산출하였고, 수평적 개인주의(HI)와 수직적 개인주의(VI) 점수의 평균을 내어 개인주의 점수로 산출하였다. 각 어머니의 개인주의 점수에서 집단주의 점수를 빼서 차이값이 양이면 개인주의, 음이면 집단주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0점인 경우 특정 문화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절댓값이 클수록 해당 가치를 강하게 지녔다고 간주하였다. 어머니 문화적 가치의 전체 평균은  $-0.37(SD = 2.07)$ 로 나타났다. 하위척도별로 수평적 집단주의(HC)의 평균 점수가 6.60으로 가장 높았고, 수직적 개인주의(VI)의 평균 점수는 4.92로 가장 낮았다. 수평적 개인주의(HI)와 수직적 집단주의(VC)의 평균은 각각 6.40, 5.08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전반적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 모두 수직적 가치보다는 수평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머니 중 집단주의 가치가 우세한 어머니

표 3. 어머니 문화설문지(INDCOL 척도) 기술통계치.

변인	구분	평균 (M)	표준편차 (SD)	최솟값 (Min)	최댓값 (Max)
전체 문화적 가치	전체	-0.37	2.07	-6.25	3.63
	수평적 집단주의 (HC)	6.60	0.98	4.25	9.00
하위 척도	수직적 집단주의 (VC)	5.08	0.95	2.75	7.25
	수평적 개인주의 (HI)	6.40	1.09	3.25	8.75
	수직적 개인주의 (VI)	4.92	0.97	2.63	7.38

는 68(53.5%)명, 개인주의 가치가 우세한 어머니는 57(44.9%)명이었고, 특정 가치가 우세하지 않은 경우는 2명(1.6%)이었다. 우세한 문화적 가치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집단주의 가치와 개인주의 가치를 지닌 두 집단 간의 비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chi^2(1) = 0.968, p > .05$ ) 특정 문화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양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어머니 문화적 가치의 점수가 다른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지니는지 살펴본 결과,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떠한 변인과의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 $ps > .05$ ).

### 어머니와 아동 간 언어적 주의 패턴 예측

어머니와 아동의 장면 묘사 시 나타나는 주의 패턴 간 관계를 아동의 연령을 통제한 부분 회귀 그래프(그림 2)로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머니가 장면 묘사 중 전경을 언급하는 비중이 높으면 아동 역시 전경을 언급하는 비중이 높은 양상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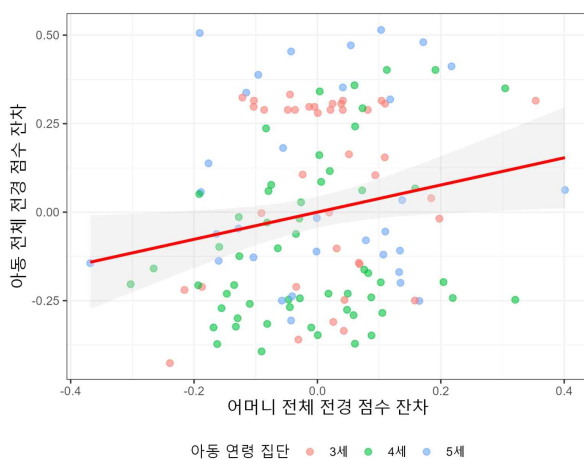


그림 2. 아동의 연령을 통제한 어머니와 아동의 전경 점수 간 관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어머니와 아동의 전체 발화 전경 점수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전경 점수가 아동의 전경 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 통제 변수인 아동의 연령(개월 수)을 투입한 결과, 아동의 연령은 아동의 전체 발화 전경 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eta = -0.26, p = .003$ , 모델 적합도,  $F(1, 125) = 9.101, p = .003$ , 표 4 참조).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장면 묘사 시 배경을 언급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의 연령을 통제하고 어머니의 전체 발화 전경 점수를 추가한 모델2도 유의하였고( $F(2, 124) = 7.184, p = .001$ ), 변인의 10.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델2의 효과 크기(Cohen's  $f^2$ )는 0.116으로 중간 수준에 근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전경 점수는 아동의 전경 점수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고유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beta = 0.19, p = .027$ ).

표 4. 어머니와 아동 전체 발화 전경 점수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델 1		모델 2
	아동 개월 수	아동 개월 수	어머니 전경 점수
<i>B</i>	-0.009	-0.008	0.384
<i>SE</i>	0.003	0.003	0.172
$\beta$	-0.260	-0.228	0.192
<i>t</i>	-3.017	-2.649	2.231
<i>p</i>	.003**	.009**	0.027*
$R^2$	.070	.104	
$\Delta R^2$			.034*

N = 127. \* $p < .05$ . \*\* $p < .01$ . \*\*\* $p < .001$ .

##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장면 묘사 과제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주의 편향을 확인하고, 양육자의 개인차가 자녀의 개인차를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와 주의 편향성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앞서 제시한 연구 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장면 묘사 방식을 살펴보면, 첫 묘사로 배경을 먼저 언급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전체적으로는 전경 언급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8~36개월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장면 묘사 방식에서 첫 언급의 비중이 전경이 컸던 김재현과 최영은(2025)의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언급 비중에서 전경 비율이 높게 관찰되었고, 김재현과 최영은(2025)에서는 첫 언급에서의 전경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경 중심의 묘사 양상은 기존 한국 성인들이 동아시아 다른 문화권의 성인처럼 배경과 맥락에 주의를 두는 전체적 주의 편향을 보인다는 보고(Rhode et al., 2016; Tajima & Duffield, 2012)와 상반된 결과였다.

그러나 두 연구에서 첫 언급 자체에서의 전경/배경 묘사 비중은 반대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배경 정보가 주로 먼저 언급되었던 데 비하여 김재현과 최영은(2025)에서는 어머니들이 전경 개체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일까? 본 연구와 선행 연구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장면 묘사 과제에서 사용한 장면 자극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에서 접할만한 장면의 사진 자극을 사용하였는데, 이와 달리 김재현과 최영은(2025)에서는 단순하게 정

제된 인공 그림 자극(예, 물속 물고기와 수초, 해양 생물 그림)을 사용하였다.

일상 장면의 사진에 담긴 배경 정보는 인공 그림 자극에 비해 더 풍부한 시각 자극을 담고 있는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해 일상 장면 사진 묘사에서는 더 다양하게 배경을 묘사할 경향성이 유발될 수 있고, 반대로 정제된 그림 자극은 배경 묘사 방식에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극의 특성이 첫 언급에서 주요한 차이를 가져왔을 수 있어 보인다.

또 다른 차이로는 김재현과 최영은(2025)에서는 어머니가 유아 자녀와 함께 장면을 바라보며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혼자 장면을 응시한 채로 자극을 볼 수 없는 아동 자녀에게 묘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동이 공통의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양육자의 묘사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극 속성 및 장면 공유 여부에 따른 묘사 방식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해 보고, 자극 속성과 무관하게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Senzaki 등(2016)의 연구에서처럼 고정된 시각 자극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여준 후 장면 기억에 기반하여 장면을 묘사하도록 하는 과제를 수행하여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고정된 시각 자극은 제시된 장면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묘사하도록 하므로 최초 처리에 기반한 회상적 묘사가 주의 패턴을 더 잘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초기 배경 언급의 비중이 높았던 결과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비록 양육자들이 변화된 가치관에 기반하여 자녀의 개인적 선택과 표현, 성취를 중요시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계의 중

요성도 전달하고 있을 수 있어(범지민, 최영은 2025; Oh et al., 2024 참조), 두 가치를 동시에 양립하려 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적 가치에서 개인주의와 더불어 집단주의도 함께 중시하는 양상이 관찰된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장면 묘사에서는 첫 언급의 비중이 주로 전경 물체에 있었다. 이후 지속하여 묘사하며 장면의 다른 부분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와 비교하여 볼 때, 3~5세 아동들의 전반적인 주의 편향성은 첫 언급부터 전반적으로 물체 중심적이고 전경 중심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물체 중심적 주의 편향성은 4~6세의 학령전기 아동에게서 기존에 관찰된 물체 편향적인 주의 배분 양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여(Darby et al., 2021; O'Hanlon & Read, 2017) 발달 초기 물체 중심적 주의를 어느 정도 내재적이고 보편적인 양상일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본 연구의 핵심 질문으로 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문화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화적 주의 편향성의 집단 수준 평균 비교가 아니라 개인차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인 묘사에서 어머니가 전경 객체에 대한 묘사 비중이 높을수록, 아동 또한 전경 객체에 대한 묘사 비중이 높게 나타나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개인차가 존재하고, 양육자와 자녀의 주의 편향성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어머니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의 개인차가 자녀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수준 분석 방식의 연구에서

관찰하기 어려웠던 양육자가 전수하는 문화적 영향이 이미 3세 경부터 자녀의 주의 패턴을 형성하는데 작용하고 있음을 지지하는 중요한 추가 증거로 판단된다. 발달 초기의 사회적 환경이 주로 가정과 양육자, 특히 주양육자에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다른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과 더불어 양육자가 자녀의 문화적 주의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실시되었기에 인과관계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추후 종단적으로 자녀와 양육자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측정하여 시간상 선행되었던 양육자의 문화적 영향이 이후 자녀의 주의 편향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명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세에서 5세로 나이가 들면서 점차 배경 언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관찰된 패턴도 종단 연구를 통해 재확인하여 발달 과정에서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내재화되고 성숙하는 지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연구 질문은 양육자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문화적 가치와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문화 설문지(INDCOL, Singelis et al., 1995)로 측정한 양육자의 문화적 가치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중 한쪽으로 크게 편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관계성이 관찰되지 않은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제한된 반응의 범위로 인해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문화적 가치에서 집단주의나 개인주의로의 가치 쏠림 양상보다는 두 가치를 수평적 차원에서 모두 중시하고 양립하는 패턴이 주를 이루어 주의 편향성과 관계성을 탐색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사용된 문화적 가치 설문 척도로 측정된 문화적 가치 개념이 문화적 주의 편향성과 연관된 문화적 가치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문화적 가치를 측정하고, 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되는 관계추론 능력발달(김가영, 2022)과 자기인식 발달(김민지, 2026)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에서도 유의한 관계성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문화 설문지에서 문화적 가치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본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는 의견도 존재한다(주미정과 이재식, 2012). 주미정과 이재식(2012)은 개개인의 문화적 가치가 독립적인 차원으로 존재하기에 단순히 통합하여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구분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권 내 개인차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Na와 동료들(2010)도 문화적 차이가 개인 차이에 직결되지는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상정하는 문화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양육자의 문화적 가치가 자녀의 다양한 사회, 인지발달 영역에서 끼치고 있는 영향을 재규명하는 작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외에도 남아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한국 사회 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개인주의나 집단주의와 같은 차원에 따른 문화적 가치가 기존의 가치에서 이행하고 있는 와중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그 영향도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문화적 가치에 기반하여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다르게 형성되는지를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 이를 직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에서 방향성이 매우 다른 여러 문화권을 동시에 비교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연구가 북미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비교되었으나 한국과 더불어 중국, 일본도 문화적 가치의 변화와 이행을 경험하고 있다는 보고도 많다(Chen et al., 2021; Park et al., 2014). 따라서 잠비아나 짐바브웨처럼 집단주의 문화적 가치가 더 강력하게 보존되어 있는 문화권과의 비교 연구 등도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연구(예, Ross et al., 2017; Tu et al., 2025)들은 이러한 확장을 시도하고 있어, 추후 이러한 협력, 비교 연구가 문화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집단 평균 비교의 방식을 벗어나 문화적 차이와 영향을 개인 차의 수준에서 새롭게 접근하여 양육자의 문화적 전수와 영향이 기존에 상정한 것보다 더 이른 시기에 자녀에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연령에 따른 변화를 통제하고도 양육자의 문화적 특성이 자녀의 주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문화 전달자로서의 양육자 역할을 부각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참고문헌

김가영 (2022). 한국 유아의 인과 관계적 추론의 발달 양상과 언어 및 사회문화적 영향의 탐색.

- 국내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https://doi.org/10.23169/cau.000000237537.11052.0000462>
- 김동노 (2023). 개인주의, 집단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와 한국 사회의 변화. **사회이론**, 153-196.  
<https://doi.org/10.37245/kjst.2023.05.63.153>
- 김미자 (2024). 한국 아동의 관계 추론 발달에서 언어와 문화적 영향. 국내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https://doi.org/10.23169/cau.000000240685.11052.0000575>
- 김재현, 최영은 (2025). 유아 자녀와의 상호 작용에서 한국 어머니가 보인 문화적 주의 편향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8(1), 45-60.  
<https://doi.org/10.35574/KJDP.2025.3.38.145>
-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 년, 1998 년, 및 2010 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2.  
<https://doi.org/10.21193/kjspp.2010.24.4.04>
- 범지민, 최영은 (2020). 한국 아동의 선택적 신뢰 발달: 5 세 아동이 4 세와 달리 정보제공자의 연령을 정확도보다 중시할 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1), 53-64.  
<https://doi.org/10.35574/KJDP.2020.3.33.153>
- 윤혜령, 최영은. (2023). 문화에 따른 양육방식: 한국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에서 주로 나타난 월경 양육행동 패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6(4), 83-101.  
<https://doi.org/10.35574/KJDP.2023.12.36.483>
- 이경원 (2013). 한국의 문화가치 변화: Hofstede 문화차원을 중심으로 한 경험적 연구: Hofstede 문화차원을 중심으로 한 경험적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097-112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69682>
- 전종우 (2022). 한국, 미국, 일본 밀레니얼 세대의 문화 차이. **광고 PR 실학연구**, 15(4), 214-231.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50036971322>
- 주미정, 이재식 (2012). 문화성향과 분석적-종합적 사고유형의 조합에 따른 전역/국소처리에서의 차이. **인지과학**, 23(2), 269-293.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901744>
- Anderson, P. (2002). Assessment and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 (EF) during Childhood. *Child Neuropsychology*, 8, 71-82.  
<https://doi.org/10.1076/chin.8.2.71.8724>
- Cao, A., Carstensen, A., Gao, S., & Frank, M. C. (2024). United States-China differences in cognition and perception across 12 tasks: Replicability, robustness, and within-culture vari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53(11), 2657-2685.  
<https://doi.org/10.1037/xge0001559>
- Carstensen, A., Cao, A., Gao, S., & Frank, M. C. (2021). Investigating cross-cultural

- differences in reasoning, vision, and social cognition through replication. *In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Vol. 43, No. 43).
- Carstensen, A., Cao, A., Tan, A. W. M., Liu, D., Liu, Y., Bui, M. K., ... & Walker, C. M. (2024). Cognitive diversity in context: US-China differences in children's reasoning, visual attention, and social cognition. *In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Vol. 46).
- Chen, X., Chen, X., Zhao, S., Way, N., Yoshikawa, H., Zhang, G., Deng, H., Cao, R., Chen, H., & Li, D. (2021). Autonomy- and connectedness-oriented behaviors of toddlers and mothers at different historical times in urban China. *Developmental Psychology, 57*(8), 1254-1260. <https://doi.org/10.1037/dev0001224>
- Darby, K. P., Deng, S. W., Walther, D. B., & Sloutsky, V. M. (2021). The development of attention to objects and scenes: From object biased to unbiased. *Child development, 92*(3), 1173-1186. <https://doi.org/10.1111/cdev.13469>
- Feldt, L. S. (1969). A Test of the Hypothesis that Cronbach's Alpha or Kuder-Richardson Coefficient Twenty is the Same for Two Tests. *Psychometrika, 34*(3), 363-373. <https://doi.org/10.1007/BF02289364>
- Imada, T., Carlson, S. M., & Itakura, S. (2013). East-West cultural differences in context sensitivity are eviden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Science, 16*(2), 198-208. <https://doi.org/10.1111/desc.12016>
- Jurkat, S., Gruber, M., & Kärtner, J. (2021). The effect of verbal priming of visual attention styles in 4-to 9-year-old children. *Cognition, 212*, 104681. <https://doi.org/10.1016/j.cognition.2021.104681>
- Köster, M., Itakura, S., Yovsi, R., & Kärtner, J. (2018). Visual attention in 5-year-olds from three different cultures. *PLoS one, 13*(7), e020023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00239>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 - 253. <https://doi.org/10.1037/0033-295X.98.2.224>
- Masuda, T. (2017). Culture and attention: Recent empirical findings and new directions in cultural psycholog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1*(12), e12363. <https://doi.org/10.1111/spc3.12363>
- Masuda, T., & Nisbett, R. E. (2001). Attending holistically versus analytically: Comparing the context sensitivity of Japanese and

-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5), 922-934.  
<https://doi.org/10.1037/0022-3514.81.5.922>
- Na, J., Grossmann, I., Varnum, M. E., Kitayama, S., Gonzalez, R., & Nisbett, R. E. (2010). Cultural differences are not always reducible to individual differenc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14), 6192-6197.  
<https://doi.org/10.1073/pnas.1001911107>
-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2), 291-310.  
<https://doi.org/10.1037/0033-295X.108.2.291>
- Oh, J., Ju, N., Graham, S., & Choi, Y. (2024). Cultural divergence in children's selective word learning: Korean and Canadian children differ in their trust of adult informants. *Social Development*, 33(1), e12707.  
<https://doi.org/10.1111/sode.12707>
- O'Hanlon, C. G., & Read, J. C. (2017). Blindness to background: An inbuilt bias for visual objects. *Developmental Science*, 20(5), e12478.  
<https://doi.org/10.1111/desc.12478>
- Park, H., Coello, J. A., & Lau, A. S. (2014). Child socialization goals in East Asian versus Western nations from 1989 to 2010: Evidence for social change in 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4(2), 69-91.  
<https://doi.org/10.1080/15295192.2014.914345>
- R Core Team. (2025).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Version 4.5.2) [Computer softwar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https://www.R-project.org/>
- Rhode, A. K., Voyer, B. G., & Gleibs, I. H. (2016). Does language matter? Exploring Chinese-Korean differences in holistic perception. *Frontiers in psychology*, 7, 1508.  
<https://doi.org/10.3389/fpsyg.2016.01508>
- Ross, J., Yilmaz, M., Dale, R., Cassidy, R., Yildirim, I., & Suzanne Zeedyk, M. (2017). Cultural differences in self recognition: The early development of autonomous and related selves?. *Developmental Science*, 20(3), e12387.  
<https://doi.org/10.1111/desc.12387>
- Rozin, P. (2003). Five potential principles for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s in relation to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4), 273-283.  
[https://doi.org/10.1016/S0092-6566\(02\)00566-4](https://doi.org/10.1016/S0092-6566(02)00566-4)
- Santos, H. C., Varnum, M. E., & Grossmann, I. (2017). Global increases in individualism. *Psychological science*, 28(9), 1228-1239.

- <https://doi.org/10.1177/0956797617700622>
- Senzaki, S., Masuda, T., & Ishii, K. (2014). When is perception top down and when is it not? Culture, narrative, and attention. *Cognitive Science*, 38(7), 1493-1506. <https://doi.org/10.1111/cogs.12118>
- Senzaki, S., Masuda, T., Takada, A., & Okada, H. (2016). The communication of culturally dominant modes of attention from parents to children: a comparison of Canadian and Japanese parent-child conversations during a joint scene description task. *PloS one*, 11(1), e014719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47199>
- Senzaki, S., & Shimizu, Y. (2020). Early learning environments for the development of attention: Maternal narrativ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1(3-4), 187-202. <https://doi.org/10.1177/0022022120910804>
- Senzaki, S., & Shimizu, Y. (2022). Different types of focus: Caregiver-child interaction and changes in preschool children's attention in two cultures. *Child Development*, 93(3), e348-e356. <https://doi.org/10.1111/cdev.13731>
- Senzaki, S., Shimizu, Y., & Ibe, S. (2025). The development of visual attention to the Ebbinghaus illusion across two cultures. *Scientific reports*, 15(1), 7008. <https://doi.org/10.1038/s41598-025-90268-w>
- Senzaki, S., Wiebe, S. A., Masuda, T., & Shimizu, Y. (2018).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selective attention in Canada and Japan: The role of social context. *Cognitive Development*, 48, 32-41. <https://doi.org/10.1016/j.cogdev.2018.06.005>
- Shimizu, Y., Senzaki, S., & Cowell, J. M. (2021).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sociomoral judgments: An eye-tracking study. *Cognitive Development*, 57, 100974. <https://doi.org/10.1016/j.cogdev.2020.100974>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https://doi.org/10.1177/106939719502900302>
- Suarez-Rivera, C., Smith, L. B., & Yu, C. (2019). Multimodal parent behaviors within joint attention support sustained attention in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55(1), 96 - 109. <https://doi.org/10.1037/dev0000628>
- Tajima, Y., & Duffield, N. (2012). Linguistic versus cultural relativity: On Japanese-Chinese differences in picture description

and recall. *Cognitive Linguistics*, 23(4), 675-709.

<https://doi.org/10.1515/cog-2012-0021>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Westview Press.

Tu, H. F., van den Berg, L., Astor, K., Mhizha, S., & Gredebäck, G. (2025). Holistic and Analytic Attention in Infancy: A Cross Cultural Study in Sweden and Zimbabwe. *Infancy*, 30(6), e70063.

<https://doi.org/10.1111/infa.70063>

Vygotsky, L. S. (1930/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Waxman, S. R., Fu, X., Ferguson, B., Geraghty, K., Leddon, E., Liang, J., & Zhao, M. F. (2016). How early is infants' attention to objects and actions shaped by culture? New evidence from 24-month-olds raised in the US and China. *Frontiers in psychology*, 7, 97.

<https://doi.org/10.3389/fpsyg.2016.00097>

## Exploring Caregivers' Influence in Shaping Cultural Attention Bias of their Preschoolers

Yujin Jeong<sup>1</sup>

Youngon Choi<sup>2</sup>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M.A. Student<sup>1</sup>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Professor<sup>2</sup>

Attention bias, the differential allocation of attention to foreground objects versus background context in everyday perception, is shaped by culture and exhibits patterns similar to adults from approximately age seven onwards. However, limited research demonstrates the direct influence of caregivers as cultural transmitters in shaping attention patterns during early development. This study measured cultural attention bias using a scene description task among 127 dyads of Korean children aged 3-5 years and their mothers, and examined whether individual differences in mothers' attention bias predicted their children's attention bias.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children aged 3-5 and their mothers displayed foreground-focused attention patterns in their descriptions. This pattern differed from previous findings in Korean adults but resembled attention bias patterns observed in North America. Furthermore, the stronger the mothers' tendency to describe foreground objects, the greater the proportion of foreground references in their children's descriptions. This predictive effect remained significant after controlling for children's age, suggesting that caregivers, as cultural transmitters, may directly contribute to shaping children's attention patterns during early development.

*Key words* : Cultural attention bias, Scene description, Cultural transmission, Caregiver influence